# 시대별 장애아동 관련 신문 보도 경향에 관한 연구

홍 용 신*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천 희 영 (고신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아동학과 교수)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이후 장애아동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아직 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남아있어 사회인식의 변화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의식 변화를 주도하고 여론을 형성하여 장애아동의 교육과 복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신문은 사회계몽성과 지도성이 강한 매체이다(윤희중, 1985). 이에 본 연구는 시대별로 신문에 보도된 장애아동 관련 기사를 기사의 수와 내용, 기사에서 다루어진 장애 유형, 기사의 프레이밍 방식과 논조 등 5개 영역에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럼으로써 통합교육의 실현을 위한 교사, 부모, 정상아동을 비롯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인식 전환과 통합교육의 인프라 확대를 위한 노력의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분석대상 시대는 특수교육사상 중요한 시점인 1981년 세계 장애자의 해를 기준으로 전후 20년 간격을 두고 1960년대, 1980년대, 2000년대로 하였으며, 각 시대의 첫 2년간, 두 개의 주요 일간지에 보도된 장애아동 관련 기사 총 365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하였다. 하나의 표제를 가진 기사를 분석단위로 하여, 시대별·5개 분석영역별로 설정된 분석유목과 유목별 세부 항목에 근거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카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장애아동 관련 기사 수는 1960년대에 44건, 1980년대에 40건, 2000년대에 28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의 내용 유목별 경향을 살펴본 결과, 1960년대에는 전통적인 기능주의적 시각에서 '의료적 재활'이나 '교육적 환경'이 강조되었고 1980년대에는 거시적 시각에서 '사회인식적 환경' 조성과 관련된 내용이 부각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통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교육적 환경', '사회인식적 환경' 관련 내용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적 환경 조성은 1960년대에는 장애를 개인이 가진 병리적인 조건으로 여겨 '분리교육'으로서의 특수교육이 강조되었고 1980년대에는 통합교육으로의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통합교육의 사례들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다. 기사에서 '장애 총칭',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기타 장애' 순으로 장애 유형이 많이 보도되었으나 다양한 유형들이 다루어지지는 않고 있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한계적 프레이밍 방식은 줄어들고 다양성 프레이밍 방식이 증가되었으며, 각 시대 모두 긍정적인 논조의 기사가 부정적인 논조의 기사 비율보다 높았고 점차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기사의 보도 경향을 고려할 때, 통합교육 패러다임의 이동과 더불어 '교육적 통합'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애아동에 대한 재개념화에 대한 노력이 더욱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